

[3 탐라순력도] 300년 전 제주 사회상 보여줘

제주 유일의 화첩... '순력도'란 이름의 기록화로도 전국 하나뿐

데스크승인 2014.01.16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300년 전 제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타임머신을 타고 3세기 전 제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당시 제주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물 제652-6호인 탐라순력도가 있어서다.

탐라순력도는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의 순력 내용을 기록한 화첩으로 가로 36cm, 세로 56.7cm 크기다. 순력은 지방관이 고을과 군 주둔지를 순시하며 민정을 살피고 군기를 조사하는 일로 오늘날 도지사의 지역 순회방문에 해당한다.

탐라순력도의 그림들은 제주목 소속 화공(畵工) 김남길이 그렸고, '오씨 노인'이 짧은 설명을 곁들였다. 그림들은 장지(壯紙)에 먹선으로 윤곽을 잡고 채색을 넣는 기법으로 그려졌다.

화첩의 지면은 서문 2면과 행사 장면 39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제주 지도인 '한라장축'과 이형상 목사가 제주를 떠나는 모습을 그린 '호연금서' 등 모두 43면으로 구성됐다.

그 중 28면은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실시된 이형상 목사 일행의 순력에 대한 기록도이다. 내용별로는 조점 8면(조천·별방·정의·서귀·대정·명월·애월·제주)과 양로 3면(정의·대정·제주), 시사 2면(별방·명월), 강사 2면(정의·대정), 사후 2면(천연·현폭), 점부 2면(모슬·차귀), 사회 1면(제주), 전최 1면(제주) 등이다.

조점과 성조는 삼읍성과 9개 진성의 군기와 군사훈련을 점검하는 장면이고, 양로는 경로잔치다. 시사와 강사는 군사들의 활쏘기 대회·시험을 그린 것이다. 전최는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모습이다.

'비양방록' 행사 그림 아래 적힌 '1702년 10월 11일 생포한 사슴들을 다음해 4월 28일 비양도로 옮겨 풀어놓았다'는 기록으로 미뤄 탐라순력도의 그림들은 1703년 5월 초순께 10여 일에 걸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1703년 음력 5월 13일로 기재된 목사의 제서(題序) 일자에 비취볼 때 순력행사가 실시된 이듬해에 화첩이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탐라순력도는 18세기 초 제주의 관아와 군사시설, 자연, 지형, 풍물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제주의 유일한 화첩인 데다 '순력도'란 이름의 기록 화로는 전국에서도 하나뿐인 지방 순력그림이어서 더욱 각별한 평가를 받고 있다.

탐라순력도에 기록된 제주는 어땠을까.

제주삼읍의 민가 호수는 9552호에 인구는 4만3515명이었다. 밭은 3640결이고, 목장 64곳에서 말 9372마리, 소 703마리가 사육됐다. 국립 과수원에 해당하는 공과원은 42곳으로 굴나무 7300여 그루가 심어졌다.

방어시설은 3성과 9진, 봉수 25곳, 연대 38곳이 있었다. 마을은 제주목에 95개 리, 정의현 22개 리, 대정현 12개 리 등 모두 129개 리가 존재했다.

그런데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은 지금 제주 지도와는 달리 남북이 거꾸로 뒤집혀 있다. 궁궐이 있는 한양에서 바라보고 그렸기 때문으로, 조선시대 지도들은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 제작됐다.

역사란 서민이 아닌 권력자 중심으로 기록된다고 했던가. 일견 씁쓸함이 밀려드는 대목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